

# 여름철 수중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익수자 구조요령과 응급대처법

여름 휴가철 물놀이객 증가로 인한 익수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처하여야겠다. 수난사고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물가에 갈 때는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요령과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두도록 하자.

글 이희택(대한응급구조사협회 교육원장)    일러스트 이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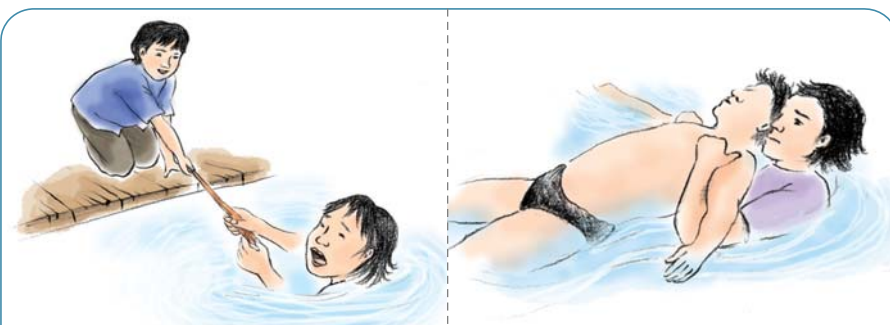
삶의 질에 대한 의식변화와 차량의 증가로 해마다 여름철 물놀이 즐기는 시민들이 해수욕장, 수영장 및 물놀이 시설 등을 찾고 있으며, 물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곳이던 각종 물놀이 사고와 익사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수상에서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생명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상안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함을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사고 원인을 보면 음주, 수영미숙, 안전 수칙 미준수, 위험한 장난, 준비운동 부족 등으로 익사하거나 수영하는 지역에 익숙하지 않아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수상관련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매우 단순하게 일어나므로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고 실천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귀중한 인명을 보호할 수 있다

### 안전수칙 및 예방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몹시 배가 고플 때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한 후에 물에 들어간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물의 온도 차가 심하거나 수심이 일정치 않은 곳이나 물의 흐름이 빠른 곳에서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수영 중 몸의 이상을 느끼면 즉시 물 밖으로 나온다.
- 물이 깨끗하고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수영한다.
- 수심이 얇은 곳이라 할지라도 미끄러져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방심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해서 수영을 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 인명구조원에 의하여 감시되는 지역에서만 수영한다(특히 어린이는 보호자의 감시하에 수영할 것).



익수자의 구조요령

### 익수자 구조요령

익수자의 구조요령은 세심한 주의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뒤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며, 수영을 하지 않고 구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수영을 하지 않고 구조하는 방법은 물에 뜨는 물체, 긴 막대, 로프를 던져 익수자를 구조하고, 손이 닿는 위치에 조난자가 있을 경우엔 옆 사람을 붙잡는 것을 피하고 언제나 물가의 단단한 물체를 잡고 뺨은 팔로 조난자의 팔과 목을 움켜잡고 천천히 잡아당긴다.

수영을 해서 구조해야 할 경우엔 익수자의 뒤로 헤엄쳐가서 머리카락, 턱을 잡고 구조하거나 머리를 두 손으로 받치고 구조하는 방법, 오른손으로 익수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끼워서 잡고 구조해야 한다.

### 익수자의 응급처치

체내의 물을 빼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며 호흡정지 및 심장 정지시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심폐소생술 요령은 최초 2회의 구조 호흡과 30회의 흉부압박(가슴 중앙부분)을 2분간 5주기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실시한다.

무기력증, 마비, 사지감각이상을 호소하면 척추손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고 젖은 옷은 제거해주고 담요로 보온해 주면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익수자의 응급처치